

수능 원서접수 ... 이걸 꼭 알아두자

오는 11월 14일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원서접수를 앞두고 접수 방법과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봤다.

우선 이번 수능 원서접수는 오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원서접수나 변경이 가능하다.

재학생들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작성·접수하면 된다. 검정고시나 타 시도 졸업생, 기타 학력 인정자는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마련된 '수능 응시원서 접수처'를 이용하면 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응시원서 작성 시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먼저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수학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직업'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한다.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직업탐구 영역은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 제한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단, 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했으면 응시 가능하다.

검정고시 합격자 중 전문계열과목 합격자와 일반고등학교 직업탐구 학생은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일반고 학생 중 전문계열 전문 교과 86단위 이상 이수자 응시가 가능하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자는 9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 가능하다.

접수 시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통(원서접수처에서 출력),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2매(응시원서 부착용),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접

접수기간 22일 ~ 9월 6일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
졸업생 출신 고교에서 접수
검정고시·기타 학력인정자
시·도교육청 접수처 이용

수시 현금 납부, 신분증 등이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에 한해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타 시도 지원자는 졸업증명서(원본·NEIS발급분도 가능함) 및 주민등록초본(원본)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졸업증명서엔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2018년 8월 22일 이후(1년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본인 직접 접수가 원칙이다.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수능의 성적 통지일은 12월 4일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와 문제지 및 답안지 인쇄·배부, 채점, 성적 통지를 담당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응시원서 작성·접수, 문제지·답안지 운송 및 보관, 시험 실시와 감독 등 시험 관리를 담당한다.

수능 당일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2-5교시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국어는 45문항 100점(시험시간 80분), 수학 30문항 100점(시험시간 100분), 영어 45문항 100점(70분), 한국사 20문항 50점(30분), 탐구는 과목당 20문항에 과목당 50점(과목당 30분), 2외국어/한문은 30문항 50점(40분)이 배정이다.

응시수수료는 3만7000원(4개 영역 이하), 4만2000원(5개 영역), 4만7000원이며(6개 영역)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 최종합격, 군입대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 장소는 원서를 접수한 곳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을 돕기 위해 원서 접수처에 다수 상주 직원을 배치했으며 다양한 대입 정보와 시험 자료, 원서 작성 요령 설명서, 원서접수·시험장 매뉴 사용설명서 등을 비치했다.

수능원서 접수 시 시각장애 등 시험 편의제공 대상자는 출신(재학) 고교를 경유해 교육청에 접수하면 된다.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학교는 해당 학교에서 직접 접수하기도 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21일 학교 밖 청소년 입시설명회

광주시교육청은 21일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입시설명회는 매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다.

시교육청 소속 진로진학 교사들이 대학 입시 수시 지원 전략 강의와 1대 1 맞춤형 대입상담을 진행한다. 광주권 대학이 입시

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등 15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 유관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학입시설명회는 진학상담 교사 9명과 광주권 13개 대학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입시설명회 참가 신청은 온라인 또는 5개 구에 위치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시상담은 각 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동강대, 2020~2024년 'P-Tech' 사업 선정

고용부서 최대 60억 지원받아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P-Tech(고숙련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주도해나갈 한국형 마이스터를 양성한다.

동강대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기술융합형 'P-Tech(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

Technology)' 사업에 선정됐다.

동강대는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한국 폴리텍대를 제외하고 광주·전남지역 사립 전문대 가운데 처음으로 'P-Tech'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동강대는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최대 6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기계자동화과와 호텔조리영양학부에서 2개 과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P-Tech'은 고교 때부터 일학습병행제

를 통해 취업한 도제학교 졸업생들이 기업에 근무하면서 전문대학에서 2년간 이론을 공부하고 경력을 쌓으며 고속도로 인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경력개발 경로 사업이다. 참여 학생은 기업과 대학을 오가며 현장 실무능력과 학위(전문학사)를 취득하게 된다.

'P-Tech' 사업단 김명수 기계자동화과 교수는 "동강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한국형 마이스터 양성과 함께 'P-Tech' 지역 거점센터 역할을 주도해나가기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런던서 '2024 IFAA 광주 대회' 유치 홍보 활동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학과장 이희승) 학생들이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19 IFAA(국제해부학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sociation of Anatomists) 런던대회에서 '2024년 IFAA 광주 대회'의 유치 및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호남대 제공>

목포대 물리학과 손석균 교수 참여 연구 논문 국제 학술지 'Nature Physics' 표지에 선정

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는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물리학과 연구팀이 주도하고, 목포대학교 물리학과 손석균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연구가 2차원 상에서만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 양자 홀 효과(Quantum Hall effect)를 그래파이트(graphite crystal) 내(3차원)에서 최초로 관측해 물리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Nature Physics'의 2019년도 15권(5.23.)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2차원)은 높은 전도도와 열전도율, 신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서 차세대 반도체 소자 및 응용 소자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졌지만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래파이트(3차원)는 물리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

이었다. 양자 홀 효과(Quantum Hall effect)는 홀 전도도가 특정한 값을 갖는 형태로 양자화 되는 2차원 전자 시스템(Two-dimensional electron gas system)에서 서만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이다. 3차원 상에서의 란다우 준위(Landau levels)는 중첩 대역으로 인해 양자화 현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금지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실험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었다.

본 연구팀은 준 금속성으로 알려진 수백 층의 원자 두께로 이루어진 그래파이트(graphite crystal) 소자를 활용해 전자 운동의 움직임이 제한된, 2차원 물질에서만 가능한 양자 홀 효과(Quantum Hall effect)를 극저온에서의 전자 수송 현상을 통해 3차원 상에서도 관측하는 데 성공하였다.



손석균 교수

또한 그래파이트 결정의 층수가 홀 수(odd number)일 때의 Quantum Hall effect gap이 상응하는 짝 수층(even number)과 다름을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소자 제작을 담당한 손석균 교수는 "지난 수년간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의 지속적인 그래핀(2차원) 연구 결과 덕분에 그래파이트(3차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양자 홀 효과(Quantum Hall effect)를 발견"했음을 강조하였으며 "그동안 많이 이해되지 못했던 그래파이트의 기본 특성을 이해하는 초석"이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눈높이 맞춤 프로그램' 운영

학교생활 이해·소통하고 진로상담 역량 강화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재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이해하고 소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눈높이 맞춤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대 대학생활상담센터는 20일부터 이틀간 학교 호심기념도서관 5층 학습법

세미나실에서 진로상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하나로 펼쳐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지도 상담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실습형 교육으로 펼쳐진

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취업 준비와 자기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대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교직원들의 심리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성격특성에 따른 학생들의 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LINC 심리검사 활용 방안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투자 하실분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으로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